

템플스테이=경쟁력 높은 문화자원

올해 초 OECD발간 연구보고서에 소개
2007년 외국인 360명 설문조사 '토대'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사업이 국제화의 잠재력이 큰 "매우 경쟁력이 높은 문화자원"이라는 보고서가 OECD에 소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스님)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OECD에서 발간한 '각국 주요 관광지의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자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에서 30개 국가의 각종 문화상품을 조사하고, 이중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된 우리나라와 호주, 오스트리아, 폴란드, 멕시코의 사례를 담았다. 템플스테이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템플스테이 참가 경험이 있는 외국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는 "템플스테이는 한국

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체험상품으로, 국제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관광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7년 73위에서 2009년 26위로 47계단을 상승하는데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에 대해 79.7%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없다(1.4%) 거의 없다(0.8)로 나타났다. 또 정신휴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76.5%)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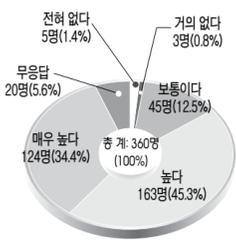
반면 사찰의 불편한 숙박시설, 효율적인 안내시스템의 부족, 숙련된 인력의 부족을 개선점으로 꼽았으며, 템플스테이 참가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시간부족(40%)과 정보의 부족(29.2%)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템플스테이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

항목	백분율 (%)
새로운 문화적 경험(불교)	54.2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9.2
불교에 대한 관심 향상	7.5
사찰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이해	-
긴장 해소를 위한 휴식시간	1.1
자아성찰의 기회	7.8
경치 감상	2.8
기타	4.3
무응답	13.1
총계	100

문화 체험을 위한 여행 목적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5 전쟁과 남북대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던 시기가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외국인들을 통해 한국 문화와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템플스테이 사찰이 자원보존이 잘 보존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실용성 등을 고루 내포하고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발전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어 여러 프로그램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의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직수 기자



“불교계에 많은 협조 바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민주당대표와 환담
주한 中대사, 현정은 현대회장도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각계 인사의 취임 축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예방을 받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계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대표는 "불교계가 포교와 전법을 위해 힘쓰시는 만큼 불심을 갖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화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강창일, 전병현, 김상희, 박선숙, 최재성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배석했다.

이어 12일에는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왔다. 외국 대사로는 처음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청용화 대사는 "한국과 중국 불교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조계종이 불교교류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유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취임 축하를 위해 방

문해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해주는 중국 정부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 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한국과 중국불교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급성장한 중국불교에 힘입어 양국 불교의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예방한 청용화 대사는 "한국과 중국 불교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조계종이 불교교류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유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취임 축하를 위해 방

문해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해주는 중국 정부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 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한국과 중국불교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급성장한 중국불교에 힘입어 양국 불교의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예방한 청용화 대사는 "한국과 중국 불교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조계종이 불교교류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유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취임 축하를 위해 방

장영성 일리정 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승가학원이사장 직대에 보선스님

12일, 이사회...신임 이사에 자승스님 선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 제85차 회의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적이자 14인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과 신임이사 선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제출됐다.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은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다른 조치로, 승가학원 이사이자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이 선임됐다. 또 조계종 종원과 승가학원 정관에 따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차기 이사회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신임 이사장에 선임하고 당연직 이사에 대한 선임 등을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skim@ibulgyo.com

외국수행자가 본 간화선은...

불학연구소, 오는20일 12번째 세미나
27일에는 '승가대학' 주제로 학술행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원철스님)가 종단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열어 주목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12차 간화선 세미나. 간화선 대중화에 방점을 찍고 지난 2006년부터 벌써 4번째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는 이번 주제를 '간화선 세계화의 전망과 (간화선) 영역(英譯)의 의의'로 삼았다.

오는 2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헌관에서 개최되며, 간화선 관련 문헌의 영역 현황과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행한 <간화선> 번역의 의의, 명상과 수행의 세계적 추세, 한국 간화선 세계화의 비전 등이 차례로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에서 출가해 10년간의 간화선 수행 경험이 있는 프랑스 출신 명상지도자 마르틴 배틀러 씨와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스님이 발제자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를 잘 아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속 간화선의 실제 위상과 세계화 방안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학연구소는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1시 조계종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개최한 세미나의 2년 격이다. '현대불교 교육기관'을 주제로 한 지난해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인총림, 중앙승가대와 함께 운문사·봉녕사 등 비구니 승가대학을 조망했다면 이번 세미나는 비구 승가대학 중심으로 풀어간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화엄사 등 5개 승가대학의 역사와 위상을 학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게 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불교연구총서' 시리즈로 발간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hskim@ibulgyo.com

사회

불교미래사회포럼 개최

일시 : 불기2553(2009)년 11월24일(화) 오후7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 불교신문·불교미래사회연구소
주제 : 부자를 위한 복지, 서민을 위한 복지
강사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의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02-725-4277)

현장에서

종이공간회원들의 보살행

지난 10일 군포시장에인복지관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했다. 주인공은 복지관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종이공간회원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재할 프로그램을 담당해 왔다. 장애인들의 손 기능 향상을 위해 자신들의 재주를 활용한 종이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라보고 분석하게 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불교연구총서' 시리즈로 발간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hskim@ibulgyo.com

성 행사가 아니라 바쁜 일정도 마다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대승보살'이라며 "이같은 활동이 귀감이 되어 자비행을 실천하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웃음을 머미게 되는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면 학교나 기업 등 각종 단체에서 먹거리나 후원물품을 준비해 많은 이들이 복지관을 방문한다. 하지만 겨울철이 지나면 다시 장애인들의 나들이 지원금도 후원하고 있다. 관장 다투스님은 "일회

돕기 위한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는 더욱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해 저소득 가정의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후원자로 남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2010전기 신입생 모집안내(야간)

○ 석사과정 / 지도자 과정

1. 모집학과 및 전공

과정	학과	전공	과정	모집(전공)분야
석사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지도자과정	불교지도자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문화예술지도자
	생사문화(장례문화)학과	생사문화(장례문화)전공		생사문화(장례문화)지도자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불교상담지도자
다도·사찰음식학과		다도·사찰음식전공	다도·사찰음식지도자	

2. 응시자격

석사과정	지도자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출신학과 제한없음) 및 동등한 자 격소지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 불교학을 연구하고자하는 각 종단의 스님과 일반인
- 2(3)학기 편입생은 타 대학원 석사과정 1(2)학기 수료 이상자(다, 불교예술학과 편입은 동일계열 이수자)	- 불교문화의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예술인
	- 신행단체의 간부 및 사회지도자 인사로 불교문화교류를 넓히고자 하는 분
	- 학력제한 없음

3. 전형일정

지원서 교부처	교부 및 접수기간	전형일시	전형장소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	2009. 11. 09(월)~ 11. 26(목) 09:00 ~ 17:00(토,일요일은 제외)	2009. 11. 28(토) 14: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전형방법 : ■ 석사과정: 서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 지도자 과정: 서류심사 및 면접

5. 전 형 료 : ₩40,000(지도자 과정은 없음)

6. 제출서류

석사과정	지도자과정 / 특별과정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증명사진 5매(3×4Cm)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직대학원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편입생)	- 승적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 승적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 5매(3×4Cm)

7.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8. 특 전

석사과정	지도자과정
- 입학원서 제출후 30%의 장학금을 졸업시 까지 지급하고 장학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함	- 신입생 전원에게 수강료 50%의 장학금을 졸업시까지 지급하고 장학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함
- 각 사당 중전급 스님, 불교단체 임원, 포교사,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국악인, 불교 미술종사자, 장례문화 및 불교상담관련단체 임직원은 전형에서 우대	- 문화예술, 생사문화(장례문화), 불교상담 지도자과정 2년(4학기)이상 수료자는 자격인증 서(대학원장 명의)를 수여
- 생사문화(장례문화), 불교상담학과 수료자는 자격인 증서(대학원장 명의)를 수여	- 불교 의료원(양 · 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 불교 의료원(양 · 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 770-2092 ~ 4 홈페이지 : http://gsb.dongguk.ac.kr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송년의 밤'

귀의삼보 하옵고, 중앙승가대총동문회에서는 己丑年을 보내며 동문스님들 선·후배간의 친목과 더불어 동문회의 발전 모색을 위한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합니다. 더불어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함께 연구하는 탁마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553년(2009)년 12월 18일(금) 오후4시30분 ~ 12월 19일(금)

• 장소 : 휘닉스파크 호텔 2층 다이아몬드 1호 (연회장) (강원도 평창군 소재, www.phoenixpark.co.kr)

• 문의 : 02-922-7881, 010-7303-7881(동문회 사무실) 033-330-6001 (휘닉스파크)

- 기수별 테이블을 준비하였으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임시총회 후 개그맨과 함께 동문스님들의 즐거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소정의 기념품을 마련하였습니다.
- 숙소마련을 위하여 참석하시는 분께서는 미리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퇴우 정님 합장